

제11과 공허한 성에 부어지는 하늘의 기쁨

이사야 24:1-28

제1이사야서의 이사야 24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사야의 심판예언을 모아놓은 이사야13장-23장에도 히스기야 시대 때 선포한 예언들이다. 이렇게 이사야13장부터 39장까지 제1이사야서의 약 70%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선포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13장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히스기야 통치시대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뉘어진다.

① 종교개혁의 시기(주전 728-711년)

728년 히스기야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 때 유다가 앗수르의 지배 아래에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통치 6년 되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목격해야 했다.

② 앗수르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시기(주전 711년-705년)

주전 710년 경 히스기야는 건강의 문제로 국정을 셉나에게 맡기게 되는데, 주전 711년 셉나는 주변국과 반앗수르 동맹을 맺고 봉기를 일으킨다.(22:15) 이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앗수르는 주전711년부터 예루살렘 내 총독부를 세우고 유다를 직접 통치했다. 유다는 사르곤2세가 암살당하는 틈을 타 705년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앗수르군을 쫓아내고 독립하게 된다. 유다가 711년부터 705년까지 앗수르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를 앗수르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묵시적으로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이사야24장-27장에 있는 '이사야의 묵시'다.

③ 앗수르의 침략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시기(주전 705년-702년)

이 시기는 유다가 앗수르의 침공을 대비하는 시기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애굽을 의지하여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지키려 하였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28장부터 35장에서 화와 회복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예언을 통해 언약백성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난국을 타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④ 유다가 앗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투병하는 시기(주전 701년)

이 시기에 이사야의 예언은 외적으로 앗수르의 공격과, 내적으로는 지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히스기야를 향해 집중되는데 이 예언을 '왕을 향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36장-38장에 수록되어 있다.

⑤ 히스기야가 자만에 빠지는 시기(주전 701년 이후-687년)

이사야39장은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이를 이사야의 유다멸망예언이라고 한다.

이사야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을 비롯한 열방에 대한 심판예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 또한 이 때 선포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24장-27장은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던 주전 711년-705년 사이에 이사야가 선포한 묵시다.

1. 다음 칼럼을 읽고 예언과 묵시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보자.

A. 예언

B. 묵시

묵시와 예언은 당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묵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과 다르다. 박해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묵시는 현재와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일반인들에게는 감추고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만 알도록 암호화된 상징이나 비현실적인 신화를 동원하여 전하는 특징을 보인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서는 주전 2세기 셀루쿠스왕조의 박해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다니엘서이고 신약의 대표적 묵시서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다.

이중 성경 최초의 묵시서는 이사야24장-27장이다.

②. 묵시서에서 이사야는 유다가 앗수르로부터 독립할 것을 다양한 묵시를 통해 예언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묵시에 용기를 얻어 사르곤 2세가 암살당하는 주전 705년 앗수르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24장의 묵시를 푸는 열쇠는 ‘땅’이다. 24장에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땅은 앗수르군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병영을 말한다.

24장 1-3절을 묵시적 관점에서 읽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③. 이사야는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파괴하고, 성을 부수고,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시겠다고 하신다. 묵시에 나오는 땅은 앗수르군이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내 병영을 말한다. 이 묵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점에 앗수르군이 주둔하고 있는 병영을 파괴시키며 약탈당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며 그들을 추방시킬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 땅에서 추방당하는 자는 앗수르군 뿐 아니라, 그들과 야합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종교지도자들도 포함된다.

24장 4절-6절을 읽고 왜 하나님께서 앗수르군을 쫓아내시면서 그들과 야합했던 종교지도자들도 쫓아내시는 지 살펴보자.

④. 하나님은 앗수르군이 머물던 곳에서 그들을 쫓아내며 동시에 그 성에 가득했던 땅의 기쁨도 함께 몰아내시며 공허한 성으로 만드신다.

24장 7절-13절을 읽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소멸하시는 땅의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⑤. 하나님은 예루살렘성 안에서 땅의 기쁨을 소멸하시어 공허한 성으로 만드신 후, 공허한 성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을 채우신다.

24장 14절-16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공허한 성이 된 예루살렘에 채우시는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24장 16절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앗수르인들을 말한다.

⑥. 이사야 선지자는 묵시 결론부에서 앗수르인들과 야합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세속화시키고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주민들을 향해 앗수르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날을 예언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24장 17절-23절을 읽고 이사야가 앗수르인과 동조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더럽히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인해보자.

⑦. 이사야 묵시에 나오는 땅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앗수르군의 병영을 말하지만, 신자의 심령에 비유될 수도 있다. 이사야서의 묵시의 땅을 신자의 심령에 비유하면 신자의 심령은 땅의 기쁨으로 가득한 심령, 공허한 심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분류된다.

말씀 앞에 자신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의 기쁨을 찾고 이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어 공허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